

 보 도 자 료	행사문의	송효진 연구위원 (02-3156-7094)
	언론담당	황애리 홍보담당 (02-3156-7296)
	보도일자	2013. 12. 17. (화)
	※ 총 4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출생신고제도 개선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 보완방안 마련되어야

국회의원 김희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 호주제도 폐지에 따라 신분등록제도를 새롭게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5년을 맞아 이에 대한 평가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 국회의원 김희정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12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 이번 행사는 201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가족관계등록법 개선방안 공론화를 통해 정책 및 입법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 최금숙 원장은 “우리 사회의 가족의 변화와 출생신고, 미혼모와 입양 문제, 개인정보보호, 다문화, 국제화, 소수자 보호 등 가족관계등록법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가족관계등록법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 1 -

- ☐ 이날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평가 및 개선방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현황 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 송 연구위원은 “조사결과, 전문가들은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써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가족관계 등록제도로의 개편 이후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및 제도 수용성 수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등에 대해서는 미약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특히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본적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고 밝혔다.
 - ☐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에 담당공무원의 77.9%, 법률 전문가의 82.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 출생신고절차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은 인우보증제도의 개선·보완이, 법률전문가들은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제도 도입이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 **인우보증제도**: 출생신고서에 의사·조산사 등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4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명인 2인의 인감증명서 제출과 출석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한 제도

1) 가족관계등록법의 ‘등록기준지’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들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알아본 결과 ‘80% 이상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본적과 등록기준지의 구분을 잘 모른다’라는 응답이 46.5%를 차지하였으며, ‘과반수 이상(50% 이상)의 민원인들이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1.2%로 그 뒤를 이었음.

- 송 연구위원은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제도’ 도입과 함께, 미혼부의 출생신고절차 개선을 위해 ‘공인기관의 유전자검사결과를 첨부하는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는 방안’을 동시에 제안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일부사항 증명제도의 원칙화, 일부사항증명서의 명칭과 종류 변경 등 일부사항증명제도의 개선 및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 제한 등의 보완책을 제안하였다.
-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후에는 김상용 중앙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허난영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오영나 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장준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붙임 1. 행사 개요

- 3 -

붙임 1 행사 개요

- 행사명 :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장소 : 2013년 12월 17일(화) 9:30~11:3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김희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프로그램

구분	내용
09:10~09:30	등 록
09:30~09:40	개회식 사회 : 한지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환영사 : 김희정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09:40~10:10	주제 발표 과 장: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 :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0:10~11:10	지정 토론 김상용(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애(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허난영(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오영나(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장준호(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11:10~11:30	종합토론 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